

# 1주 2019년 동계방학 묵상지

이름: \_\_\_\_\_ 학번: \_\_\_\_\_

12월 16일 월요일 <말씀묵상> **욥 46**

• **내용요약:** 4장은 욥을 향하여 친구 중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으니 이러한 일은 모두 인과응보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5장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복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한다. 6장 엘리바스의 1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으로 자신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면서 친구에게 조차 고난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의로운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았음을 다시금 변호한다.  
 ▶ **질문:**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의 고난을 합당하게 여길 것을 권한 친구는 누구인가?(4장)  
 ▶ **생각하기:** 고난 가운데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까?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12월 19일 목요일 <말씀묵상> **욥 13-15**

• **내용요약:** 13장은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전부 자신의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는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대하여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하시면 자신이 대답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14장은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한다. 15장은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의 이름으로 왔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공박한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전통의 권위에 근거하여 욥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고 정죄한다.  
 ▶ **질문:** 욥에게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15장)  
 ▶ **생각하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욥도 결국 고통 앞에 무릎을 꿇은 듯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역을함을 토로하는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는가?

12월 22일 일요일 <말씀묵상> **욥 22-24**

• **내용요약:** 22장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세 번째 공박을 한다.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자신의 공박에 인과응보 사상을 공박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

12월 17일 화요일 <말씀묵상> **욥 7-9**

• **내용요약:** 7장은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면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자신의 고통이 중하므로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이 고통을 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8장은 욥을 향하여 친구 빌닷이 공격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빌닷은 그러하기에 욥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보존되지 못한다고 한다. 9장은 빌닷의 공박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의롭겠는가라고 변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판결해 줄자를 찾는다.  
 ▶ **질문:** 욥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인가?(8장)  
 ▶ **생각하기:** 빌닷과 욥 사이에 오고가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임을 서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20일 금요일 <말씀묵상> **욥 16-18**

• **내용요약:** 16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하여 욥은 친구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근심이 풀리지 않으며 아픔이 줄지 않는다고 탄원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집과 자신을 멸망케 하시며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자신을 중보해 줄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17장은 자신의 고통이 점점 중하여지는 가운데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함으로써 죽음을 동경한다. 18장은 욥을 향하여 친구 빌닷이 두 번째 공박을 한다.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는 욥을 향하여 교만한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욥을 꾸짖으며 정죄한다.  
 ▶ **질문:**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가?(16장)  
 ▶ **생각하기:** 친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혹 욥의 친구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한다. 23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결백과 죄 없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주께서 아시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단련시켜 순금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24장은 악인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며 의인들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욥은 말한다.

12월 18일 수요일 <말씀묵상> **욥 10-12**

• **내용요약:** 10장은 빌닷의 공박에 욥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고통의 나날 가운데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는 주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자신을 조급이라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한다. 11장은 욥을 향하여 친구 소발이 공박한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시작하는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인간이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욥이 회개하면 희망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12장은 소발의 말에 욥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왕과 권력자들의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 **질문:** 소발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11장)  
 ▶ **생각하기:**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모두 죄 때문일까?

12월 21일 토요일 <말씀묵상> **욥 19-21**

• **내용요약:** 19장은 자신을 불의한 자로 규정하는 빌닷의 공박에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나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판결해 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20장은 욥을 향하여 친구 소발이 두 번째 공박한다. 친구들의 말에 계속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욥을 보면서 악인은 필히 망한다고 거칠게 말하면서 인과응보 사상을 토대로 다시 한번 욥을 정죄하면서 비난한다. 21장은 소발의 공박에 대하여 욥은 악인의 고통과 의인의 형통함을 말하면서 인과응보 사상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헛된 거짓이라고 한다.  
 ▶ **질문:**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는 사람은 누구인가?(21장)  
 ▶ **생각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주변에서 우리는 진정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뜻깊음이 있는가?

▶ **질문:** “오늘도 내게 ( )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 )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23장)  
 ▶ **생각하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주위의 정죄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날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왔던 욥조차도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의로움을 내세우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해보자.